PASTORAL CARE FOR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GEISM IN THE KOREAN CHURCH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Doosik Chae

May 2021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Doosik Cha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Yong 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1

ABSTRACT

PASTORAL CARE FOR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GEISM

IN THE KOREAN CHURCH

by

Doosik C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alternatives to pastoral direction and practice regarding the elderly in Korean society and the church. To this end, I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f and analyzed the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of believers in Church K according to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First, I divided the members of Church K into young and old and then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about their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After examining their experiences, I interpreted their results in terms of ageism. In doing so, I propos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pastoral direction and practice: a pastoral ministry for the elderly who experience alienation, a new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aging', a balance between self-discipline and self-regulation, and a birth of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KEYWORDS: Old Age, Ageism, Age Discrimination, Qualitative Research,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y Group

국문 초록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

by

Doosik Chae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K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세대 간 경험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질적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는 먼저 K 교회의 구성원들을 청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로 구분한 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에이지즘의 관점으로 해석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고령화의 형태로 변해가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 대안으로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년 세대와 함께하는 목회, ‘나이듦’에 대한 사고의 전환,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노년 세대, 에이지즘, 노인 차별, 질적 연구, 세대 간 자서전 그룹

SUMMARY

With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ving seen constant annual growth, Korean society can be said to have become an aging society. However, there is an institution wher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far greater than that of the general public: the church. It is in the church where not only the proportion but also the rate of growth is greater—an ever-increasing task at hand. In most churches (excluding those ministries specializing in such areas), the elderly form the largest age group of the congregation. Thus, the Korean church has entered into the "super-aging" category. Furthermore, as the older generation tends to resist change and unfamiliarity,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re aggravated due to Confucianism and patriarchal values underlying society and the church. Such conflicts have become more serious because of their ties to such social issues as employment and aging. In particular, new derogatory terms such as "old worm", "dirty old man", "yolo-er", and "dirt spoon" are constantly being produced, shared, and publicized. Thes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large and small, are gaining momentum within society, the workplace, the church, and the family. Beginning with questions from my pastoral experience, this study proceeds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do the various generations in the church experience intergenerationally? Is the super-aged Korean church heading towards the right ministry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elderly?"

In the midst of worse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e continue to have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 In the Korean church, which has already been in an inverted pyramid with its elderly majority, there is only a verbal emphasis of the importance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though they form the majority, the elderly are marginalized and thus alienated by the Confucian value of elderly respect. When they retire from their positions, they are excluded from

all and any former ministries. After Sunday worship, they fellowship over lunch and return home—a weekly routine for them. In addition, if the pastoral dir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can be said to be established mutually between congregant and pastorate, that of the elderly is established by the pastor, not the elderly congregant. In many cases, multiple facets of elderly ministry are tweaked without any elderly input. As a result, the elderly generation are gradually losing their place and identity in the church.

Therefore, I propose four alternatives to pastoral direction and practice with regards to the elderly. First, focusing an elderly ministry on experiences of loss,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would reset post-retirement life by overcoming difficulties caused by Confucianism and societal changes. Second, there must be a shift in thought regarding aging, particularly against those stereotypes and prejudice about old age. Third, an elderly ministry that balances faith and practice must stres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both self-discipline and self-regulation. Lastly, a birth of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will overcome intergenerational gaps in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articularly that of elderly discrimination.

Through this study, I seek to present the importance of elderly ministry in the church, focusing on the earnest prayer and tears that date back to the revival period of the Korean church. Such a recalibration of ministry direction and practice will contribute to a more healthy ministry that caters to all generations.

국문 요약

한국 사회는 매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노년 세대 비율은 한국 사회의 노년 인구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특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제외하면 일반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 대비 노년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다. 초고령화 교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교 영향과 가부장 풍토에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노년 세대와 이에 맞서는 청장년 세대 간의 갈등이 전 분야에 거쳐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차별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차별은 사회적으로 고령화 문제, 취업 문제 등과 연결되어 더욱 심각하다. 특별히 '노인충', '틀딱충', '노슬아치'와 같은 노년 세대에 속한 노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유되어 공론화되고 있으며,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교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는 노년 세대는 세대 간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초고령화된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에 대한 올바른 목회 방향과 이 목회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나의 목회 경험을 통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세대 간 갈등을 바탕으로 노인 차별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노년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교회의 세대 구성이 노년 세대로 집중되는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인 한국 교회의 목회 상황에서 교회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 세대는 '공경'이라는 유교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노년 세대는 자신의 직분에서 은퇴하고 나면, 예배 안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식사를 한 후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반복되는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다. 또한,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와 청장년 세대의 목회 방향은 교회와 목회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는 것에 반해, 노년 세대의 목회 방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교회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노년 세대를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설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는 많은 경우 목회 방향이 없는 획일화된 프로그램들과 심방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는 점차 자신들의 설 자리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나는 노인 차별을 중심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에서는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노인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노년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재설정을 위한 실천 중심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나이듦에 대한 사고의 전환'에서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나이듦에 대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을 통하여 노년 세대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함을 목회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노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함께 해오며 기도와 눈물로 헌신해왔던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세대 목회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Background and Issues Addressed by the Study)

최근 한국 교회 목회 키워드는 '성장'으로부터 '건강'으로, 목회 방향은 '다음 세대의 복음화'다. 나 역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목회에 관심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청소년과 청년 목회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목회 현장에서도 그동안 청소년과 청년 목회에 관한 다양한 공부와 사역에 많은 부분을 집중해왔고, 다음 세대 복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러던 중 2019 년 5 월,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김용환의 강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를 통해서 에이지즘(Ageism)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1] 이 관점을 통하여 초고령화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경험, 그리고 그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연령 차별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 목회 사역에서 간과되고 배제되어 있었던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중에서도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

[1] 에이지즘은 연령 차별주의로써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 및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에이지즘은 넓은 의미에서 나이를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 즉 연령 차별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노인들을 차별하는 노인 차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연령 차별인 노인 차별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 페이지 참고.

최근 내가 사역하고 있는 K 교회는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갈등의 원인은 주일 예배 후 함께하는 '점심 준비' 때문이었다. 노년 세대는 그동안 자신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점심 준비 봉사를 해 왔듯이 앞으로는 청장년 세대가 준비하자는 입장이었고, 청장년 세대는 주중에 일과 육아 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서까지 일하기는 어려우니 점심을 사서 먹자는 입장이었다. 노년 세대는 청장년 세대들이 노년 세대의 의견에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장년 세대는 오히려 노년 세대를 향하여 이제 교회 직분에서 은퇴했으니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담임 목회자와 상의하여 진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지만 세대 간 의견 차이와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당회 때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나의 목회 경험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 안에 있는 노년 세대는 세대 간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초고령화된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에 대한 올바른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는 많은 경우 목회 방향이 없는 획일화된 프로그램들과 심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는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함께 해오며 기도와 눈물로 헌신해왔던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특별히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다음 세대 목회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B. 논지와 토론 (Thesis and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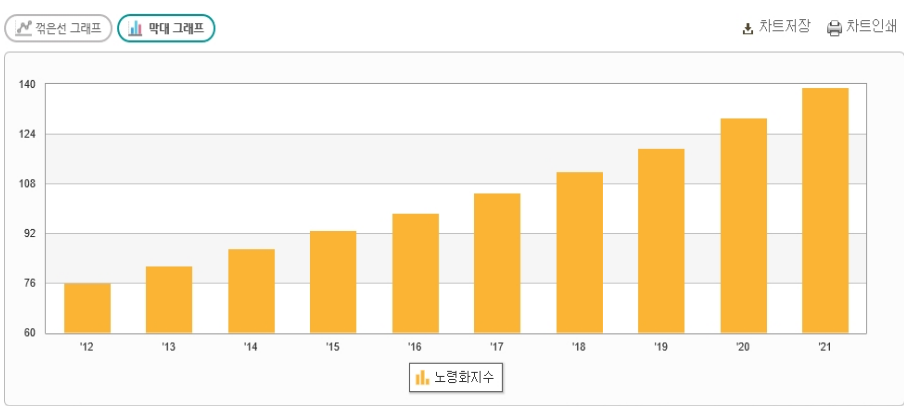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룰 내용은 세대 간 경험을 바탕으로 K 교회 안에 나타나는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에 관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매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 현재 고령화 사회[2]로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3] 아래와 같이, <표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노령화지수가 2012 년 76.1 을 넘어 2017 년에는 105.1, 2021 년 현재에는 138.8 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4]

〈표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
노령화지수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당)	76.1	81.5	87.0	93.0	98.4	105.1	111.9	119.4	129.0	138.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범례에서 개별지표를 선택할 경우 그래프가 사라지거나 나타납니다.

---

[2] "고령화사회," 한경 경제용어사전, accessed January 7,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574&cid=42107&categoryId=42107. 국제연합(UN)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3] Paul H. Irving, *The Upside of Aging: How Long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Health, Work, Innovation, Policy and Purpose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trans. 김선영 (서울: 도서출판 아날로그, 2016), 17.

[4] 유소년인구(0~14 세) 100 명에 대한 고령인구(65 세 이상)의 비이다.

그런데 교회의 노년 세대 비율은 한국 사회의 노년 인구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특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 대비 노년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다. 초고령화 교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유교의 영향과 가부장 풍토에 영향을 받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년 세대와 이에 맞서는 청장년 세대 간의 갈등이 전 분야에 거쳐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차별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차별은 사회 영역에서는 취업 문제, 고령화 문제 등과 연결되어 더욱 심각하다. 특별히 '노인충', '틀딱충', '노슬아치'[5]와 같은 특정한 연령대에 속한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공유하며 공론화하고 있으며,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교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을 바탕으로 노인 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노년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교회의 세대 구성이 노년 세대로 집중되는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인 한국 교회의 목회 상황에서 교회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 세대는 '공경'이라는 유교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노년 세대는 자신의 직분에서 은퇴하고 나면, 예배 안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

[5] 노인충: '노인'과 '벌레 충(蟲)'이 결합된 노인 혐오에 대한 신조어로써 벌레 같은 노인을 의미함; 틀딱충: '틀니를 딱딱거린다'와 '벌레 충(蟲)'이 결합된 신조어로써 무력하고 무식한 노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함; 노슬아치: '노인'과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나이 든게 벼슬인 줄 안다는 뜻의 신조어.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식사를 한 후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반복되는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다. 또한,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와 청장년 세대의 목회 방향은 교회와 목회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는 것에 반해, 노년 세대의 목회 방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교회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노년 세대를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설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프로젝트가 연구 범위의 한계상 노인 차별, 노인 혐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 갈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구나 경험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세대 간 연령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을 통하여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Terminology)

1.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 (Elderly and Young Adult Generation)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노년 세대를 60 세를 기준으로 규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65 세를 기준으로 노년 세대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1950 년 12 월 총회에서 65 세를 세계 각국의 고령화 지표 기준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는 65 세를 노년의 시작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6]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노년 세대는 현재 내가 연구하고 있는 교회가

[6] 최성훈, *고령사회의 실버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43.

속한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평신도 직분 은퇴 연령인 만 70 세 이후의 노인들로 정의할 것임을 밝힌다.[7] 또한, 청장년 세대는 30~70 세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 세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세대이다. 노년 세대를 앞둔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이며, 앞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대이다.

2. 에이지즘 (Ageism)

노인의학 전문의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는 에이지즘을 "노인, 노년, 그리고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대하는 편견에 찬 태도들의 조합"[8]으로 정의했다. 또한, 김용환은 에이지즘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서는 나이를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 즉 연령 차별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노인들을 차별하는 노인 차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바뀔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지즘에 대한 좀 더 발전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이지즘은 노인, 노령, 노화의 과정에 대한 선입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을 향한 차별적 관행, 노인들을 향한 고정관념을 영속화 시키고, 삶의 만족 기회를 축소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하는 제도적

[7] 장정개정위원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19), 74.

[8]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A Manifesto Against Ageism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trans. 이은진 (서울: 시공사, 2016), 29.

관행과 정책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9] 이와 같이 에이지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인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에이지즘을 사용한다.

3. 자아 통합 (Ego Integrity)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생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을 '자아 통합'이라고 한다. 그는 자아 통합의 달성은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노인에게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10]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인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여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녕 상태(psychological wellbeing)를 말한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자아 통합이란 자기의 지나간 일생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느낌이 들 때,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다.[11]

4. 세대 간 자서전 그룹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y Groups)

자서전 그룹은 노인 차별에 저항하는 회상집단 치료로서의 노인들을 위한 그룹이다. 마가렛 모간로스 굴레트(Margaret Morganroth Gullette)는 "노인 차별은 쇠퇴의 이야기(a

---

[9]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une 3, 2019).

[10] Jackie C. Lanum and James E. Birren, "성인발달의 이론과 개념," in *노화, 영성, 종교*, eds. Melvin A. Kimble et al, trans. 노인사목연구위원회 (서울: 소화, 2011), 588.

[11]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14.

decline narrative)이며, 노인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노화의 과정 가운데 발전의 이야기(a progress narrative)를 갖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자서전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이며, 노인들이 자기 자신의 발전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서전 그룹은 치료적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신시아 켈람 스틴슨(Cynthia Kellam Stinson)은 자서전 그룹에 대하여 "자서전 그룹은 긍정적인 기억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노인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데에 구조화된 자서전적 회상이 효과가 있다"[12]는 증거들을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발전시킨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젊은이들이 노인과 노화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노인 차별의 극복과 노년 세대 목회를 위한 실제적이며,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 청중 (Audience)

본 연구의 주된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 세대 목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목회자이다. 좀 더 구체화해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유교와 가부장 풍토의 영향을 받은 초고령화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 목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중심의 목회 방향과 돌봄에 관해 고민하는 목회자이다. 둘째, 교회 안에 있는 청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다. 특별히 노년 세대가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과 노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장년 세대에게는 노년 세대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노년 세대에게는 노년 세대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노화, '나이

[12]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듦'에 대하여 성서와 신학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체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를 부모로 둔 그들의 자녀 세대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조부모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인식 전환, 앞으로 자신도 경험하게 될 노년에 대한 선입견,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이 연구는 단순히 K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 여부를 파악하고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유교와 가부장 풍토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년 세대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년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에이지즘의 관점으로 노인과 노화(나이 듦), 더 나아가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눔을 통해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교회의 노년 세대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갈등상황 등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환대 신학의 이론들을 근거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이 프로젝트는 안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히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 세대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목회 방향의 변화와 자서전 그룹, 세대 간 자서전 그룹과 같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목회 돌봄 방법들을 통하여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노년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기독교 본질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F.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Unique Features and Contribution)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노년 세대에 적합한, 노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 선교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13]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노년 세대 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노년 세대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외로움과 고독, 소외를 경험하는 노년 세대에게 바른 정체성과 건강한 신앙, 노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노년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실감과 차별, 소외에 대하여 에이지즘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노년 세대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교회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던 노년 세대를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초청한다. 둘째,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심층 면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에이지즘의 관점으로 세대 간 연령 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을 통하여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세대 간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신병련,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세대의 신앙활성화 방안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and 이찬영, "노인교육목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참고.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이 있다.

G. 논지의 흐름 (Chapter Outline)

1 장 '서론'에서는 나의 목회적 상황 속에서의 핵심적인 갈등,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K 교회의 세대 간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방향에 대한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후 논지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청중, 연구의 범위와 한계, 독창성과 공헌, 논지의 흐름에 관해 설명하였다.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에이지즘에 대한 이해'와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 '성서적,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화와 영성'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이론적 배경에 관해 설명하였다.

3 장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K 교회 성도들의 세대 간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 방법과 절차, 연구 결과 및 해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별히, 에이지즘의 관점을 통하여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4 장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에서는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세대 간 경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였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차별, 상실감으로부터 회복하고,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에이지즘의 관점을 통해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Chapter Ⅱ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Background)

A. 에이지즘(Ageism)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Ageism)

1. 에이지즘의 정의와 특징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geism)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왜 그렇게 변함없이 암울하기만 할까?”라는 애슈턴 애플화이트(Ashton Applewhite)의 질문과 같이 고령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에이지즘’, 즉 연령 차별이다. 노인의학 전문의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가 ‘연령 차별’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은 1968 년이다. 이때 버틀러는 연령 차별을 “노인, 노년, 그리고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대하는 편견에 찬 태도들의 조합”으로 정의했다.[14] 또한, 인간은 노화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요소들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5] 이러한 에이지즘의 본래의 의미는 노년 세대에 대하여 ‘현명한’, ‘지혜로운’, ‘넓은 인생 경험을 가진’ 등의 긍정적 인식과 ‘까다로운’, ‘외로운’, ‘노망난’ 등의 부정적 인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젊음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의 연령주의란 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즉 편견의 의미로 사용된다.[16] 이와 관련하여 김용환은 에이지즘은 좁게는 노인 차별, 크게는 나이차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 차별의

---

[14]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29.

[15] 김만수, “세대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비교한국학회* vol. 25, no.3 (December 2017): 128.

[16] 유혜경 and 이민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인식 수준에 따른 노년 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 25, no. 5 (October 2019): 587.

대상이 바뀌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노인 차별로서의 에이지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이지즘은 노인, 노령, 노화의 과정에 대한 선입견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을 향한 차별적 관행, 노인들을 향한 고정관념을 영속화 시키고, 삶의 만족 기회를 축소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제도적 관행과 정책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7]

이처럼 에이지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 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인 차별'[18]이라는 관점에서 에이지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한다. 노인 차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김욱은 노인을 개개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19]과 개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등을 고려하는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인 차별은 기능적 연령이 아니라 역연령에 의해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노인 차별은 인종 차별, 성차별

[17]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18] 일반적으로 노인 차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하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는 세금 혜택, 공공서비스 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같은 긍정적인 노인 차별도 있다.

[19] 역연령이란, 생활 연령이라고도 하며, 출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상의 나이를 의미한다. 역연령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5 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UN 은 15 세에서 64 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65 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 건강진단, 경로우대 등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만 65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구통계 등 각종 통계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이라는 사회의식이 있고, 정년퇴직이 60 세 내외로 시작되기 때문에 60 세가 노인의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등과는 다르게 연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차별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0] 또한, 에이지즘의 핵심문제, 한 개인을 향한 부정적 요소가 오직 그 사람의 많은 나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바라본다는 점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인다.

첫째, 성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다른 차별들과 다르게 에이지즘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반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자신이 도달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회피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반대하거나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글들은 넘쳐나지만 에이지즘에 대한 글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할 적이 없는 것이다. 즉, '자동적 노인 차별(Automatic Ageism)'[21]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동적 노인 차별이란, 노인 차별의 무의식적 과정으로써 노인과 젊은 세대 모두 노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이에 비해 동안이시네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시네요.',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지' 등과 같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표현 모두가 연령 차별 사례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경우 그 대상을 피해자로 만들지만, 노인 차별은 그 대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인이 될 자신까지도 피해자로 만든다는

---

[20] 김욱,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 14 (June 2002): 100.

[21] 에이지즘(Ageism)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상이나 태도, 행동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크게는 연령차별주의를 의미하지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차별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노인 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다른 차별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노인 차별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더 나아가 세대 간 연령차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내면화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Internalized Stereotypes and Prejudices)

애플화이트는 'young'과 'old'를 비교하며 young이 매력적이라거나 시대를 앞서간다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듯, old 역시 추하거나 시대에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22] 내면화된 고정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내면화된 고정관념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된다. 태어날 때부터 연령 차별주의자인 사람은 없지만, 연령 차별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노령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발달시킨다.[23]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신념과 견해들이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 역시 'old'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노인들이 쓸모없고 쇠약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람들 안에 내면화되면, 어느샌가 그 사람들은 노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한계를 두게 된다. 그리고 내면화된 고정관념은 연령 차별의 대상인 노인 역시 가해자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2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66.
23 Ibid., 70.

실제로 이러한 연령차별주의는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K 교단의 구인구직란만 보더라도 목회자 청빙 시 나이 제한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많은 목회자가 연령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대형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경우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부목사가 목회 기획행정을 담당하고, 가장 젊은 목사가 교육부를 담당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회에 있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 비해 느리고, 건강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에 대하여 한계를 정해놓기도 한다. 분명히 겉으로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으니 이제부터는 기도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년층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로장로', '원로권사' 등으로 직분을 바꿈으로써 노년 세대를 교회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연령 차별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이는 인종이나 성별과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더 힘들다.[24]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연령 차별에 대한 내면화된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살펴봄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B.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the Older Generation)

1. 노화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징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eatures of Aging)

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노인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 버틀러의 지론이다. 즉,

---

[24]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377.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레는 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노화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되고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몸이 변화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생명체가 더는 번식할 수 없고 자손을 양육하지도 않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25]

이러한 관점으로 노화를 바라보면 몸이 노화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난다. 주름살이 늘고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 노화는 노인을 대하는 상투적인 편견들을 떠오르게 하므로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더욱 두려움을 갖는다.[26]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노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노인들을 막연하게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금은 젊은 자신들이 노인 차별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대상 안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인들 스스로 다른 노인의 행동이나 외모에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사람들에게 노화에 대해,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 편견들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노화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퇴행적 발달을 의미한다. 노화는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그 속도와 정도는 개인마다 다른 개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인간은 긴 인생 주기 속에서 역동적 안정과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노화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를 단일한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25] Mathias Irle, *ÄLTERWERDEN FÜR ANFÄNGER 노인은 늙지 않는다,* trans. 김태희 (서울: 민음사, 2015), 19.

[26] Ibid., 25.

따라서 노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27]

신체적 노화란 신체 구조와 기능의 쇠퇴로 인해 신체 활력을 상실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하는 노화 영역이다. 연령 증가로 나타나는 시력 변화는 노화의 첫 증상이며, 노인성 난청은 단어 이해를 어렵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75~79세 노인 중 약 50%가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씹기와 같은 저작기능이 저하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제한으로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된다. 필수영양소 결핍과 영양 관련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기전은 신경계 및 호르몬 변화, 영양 상태의 불균형, 신체활동의 감소, 만성 염증의 지속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을 강화하는 규칙적인 운동(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 손실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거나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와상상태와 같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손실을 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노화란 연령 증가로 나타나는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능 저하, 씹기와 같은 저작기능 저하, 근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8]

심리적 노화란 인지와 정서 및 정신기능과 성격 등과 같은 심리 내적 측면과 신체적 노화, 사회적 노화와 같은 심리 외적 측면과의 상호작용으로 퇴행, 유지 및 성숙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심리적 조절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인지기능과 우울은 대표적인 심리적 노화이다. Petersen(1997) 등은 정상은

[27] 박인아 and 엄기욱, “노인의 연령이 심리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노화를 통한 사회적 노화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 75, no. 4 (December 2012): 265.

[28] Ibid., 265-66.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매도 아닌 경도 장애 상태를 경도인지기능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라 하고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노년기 우울감은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이다. 노인은 사별, 은퇴, 빈곤 등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노화란 연령 증가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증가를 의미한다.[29]

사회적 노화란 노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작용의 변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집단과의 접촉과 더불어 직업, 여가, 봉사활동 등 보다 공식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면적 접촉과 전화나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적 접촉을 한다. 노년기는 자녀 결혼, 은퇴, 배우자나 지인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들은 퇴직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식적 관계보다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적인 관계는 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노화란 연령 증가로 나타나는 대면적, 비대면적 사회활동의 축소를 의미한다.[30]

2. 삶과 노화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ging)

현재의 노년 세대는 문화의 격변을 경험한 세대이다. 그들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것들,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교양과 성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을 개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며, 그 밖의 많은 제한점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9] 박인아 and 엄기욱, “노인의 연령이 심리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265-66.

[30] Ibid.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의 삶은 노화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애플화이트는 삶과 노화를 동일시하며 "삶과 노화는 분리될 수 없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노화가 질병이라면, 삶도 질병일 것이다). 노화는 '치료'할 수 없다. 노화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1]라고 설명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본질인 건강보다 비본질인 젊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 외적인 성공과 젊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내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과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nti-aging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노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야 하는데 노화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젊게 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다.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연령 차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을 비롯하여 목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C. 성서와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화와 영성 (Aging and Spirituality from a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1. 성서와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화 (Aging from a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먼저 성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화는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31]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153.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개역개정)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노화는 다양한 상실과 함께 영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성의 입장에서 본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한다.[32] 또한, 노화에 관한 다양한 신학의 관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면,[33] 노화를 세 가지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4]

첫째, 창조 과정으로서의 노화이다.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은 성서적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는 노화가 하나님의 본성이나 체험의 일부가 아니기는 하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적 관점에서, 노화를 창조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권적인 관계는 많은 성서 구절 속에서 확인되었다. 창세기 1장 26~28절[35]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인간에게 나머지 피조물을 지배할 권리를 주었음을

[32] 2. 노화와 영성의 관계(pp.21)에서 영성의 의미 참고.

[33] *노화, 영성, 종교*에서는 노화에 관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유대교의 관점, 가톨릭의 관점, 복음주의의 관점, 신정통주의의 관점, 과정 신학의 관점, 여성주의 신학의 관점, 구성주의 신학의 관점 등 총 7가지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나는 한국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노화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4] James J. Seeber, Melvin A. Kimble, James W. Ellor, and Susan H. McFadden,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노화, 영성, 종교,* trans. 노인사목연구위원회, 김열중, and 이순주 (서울: 소화, 2011), 471-81.

[35] 창세기 1장 26-28절(개역개정).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기술한다.

둘째,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노화이다. 변화와 성장은 노화에 내재하는 과정이다. 가장 폭넓은 정의로 노화란 일련의 변화가 펼쳐지면서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움직여 가는 과정이다. 유아가 나이 드는 과정은 노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각각은 그 과정의 양극을 대표하고 개별적으로 독특하지만 단절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양 시기의 어느 한쪽에 속한 사람이 다른 쪽에 속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그들 둘은 동일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셋째, 영성을 향하는 과정으로서의 노화이다. 인간 존재는 생물학적이며 정서적인 존재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각자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자라고, 완전한 사람이 되며, 어른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육체적 및 정서적 발달 그리고 영적 성장 속에서의 성숙과 영성이 목표이다. 성서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탐구를 시편 42편 1절과 같이 기술한다.[36] 노화의 체험에서는 육체적인 활력과 건강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숙과 사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이 성서가 주는 메시지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

2. 노화와 영성의 관계[37]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d Spirituality)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노화가 다양한 상실과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

[36] 시편 42 편 1 절(개역개정).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37]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영적인 발전은 상실과 매일 함께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38] 전통적인 영성은 오늘날의 영성보다 더 개인적인 경건과 영적인 현존의 충만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적인 영성은 연결성과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관계적이며 사회적 참여를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노년기의 영성은 노인들의 육체적 상실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영성을 관계적 차원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 자아, 타인, 세상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노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공헌을 하게 한다. 이런 영적 발달을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은 하나님과 자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친밀한 앎', 이웃과 정의를 위한 선하고 옳은 '실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느끼는 것에 대한 집중'이다.[39] 또한,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그의 책, *나이듦의 신학*에서 "나이듦은 생물학적 과정보다 영적 과정으로서 더 중요하다"[40]라고 언급하며, 나이듦, 노화가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화와 영성을 성서와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노화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노화를 깊이 경험하는 노년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기이며, 이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화와 영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노년기 영성의 성장은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상실을 통한 자아발견'[41]을 하고, '타인과 사회를 위한 공헌'을 위한

[38] 고린도후서 4장 16절(개역개정).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39]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40] Paul Stevens,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나이듦의 신학*, trans. 박일귀 (서울: 도서출판 CUP, 2018), 94.

[41] 이것은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와 같이 의도적인 상실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Chapter Ⅲ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 질적 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1. 현상학적 방법론

본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K 교회는 세대 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에이지즘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의 변화와 실천적 목회 돌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감정, 태도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며,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그동안 연구 대상자들에게 감추어졌거나 소외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질적 연구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다르게 심지어 연구 대상이 1 명일 수도 있을 만큼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하며,[42] 이것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43]

---

[42]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26.

[43]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 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345.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방법론은 인간이 경험한 현상에 접근하여,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밝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이 경험한 의미를 기술하며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44] 교회의 세대 간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교회의 각 세대에 속한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대 간의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은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심층 면담

나는 심층 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지만, 면담 시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적절하게 유지-통제하는 면담형식을 의미한다.[45] 이러한 방식은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과 신앙의 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면담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방만해져서 연구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B.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s)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황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K 교회(K 교단)에

---

[4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45]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26.

출석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세대 간 경험을 하는 성도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30 대부터 70 대 이상까지의 성도들을 성별로 나누고, 청장년 세대(30~70 세)와 노년 세대(만 70 세 이상)로 구분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46] 선정 기준은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 가족의 형태, 구조,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선정 기준들이 심층 면담 질문들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답변에 대한 적극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조부모와 함께 산다거나 자녀의 유무, 맞벌이와 같은 직장 상황 등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에 따라 제한되는 질문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질문들을 상황에 맞게 추가, 또는 생략하여 답변의 신뢰도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고려하였다.

K 교회 성도 중에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는 총 12 명이다. 먼저 연구 참여를 위한 계획과 참여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공지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였다. 또한,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명, 또는 익명을 사용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연구 참여에 대한 고민이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참여는

[46] 처음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분을 성별로 나눈 후 크게 두 그룹(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으로 나누고, 젊은 세대는 다시 두 그룹(자녀 세대[10~20 대], 청장년 세대[30~60 대])로, 마지막 노년 세대(70 대 이상)로 구분했었지만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조언을 통하여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특징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심층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47]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가 같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성도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일대일 형태의 심층 면담 형태로 약 1 시간 정도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쉬었다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후 나중에 다시 면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킴으로써 면담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상담 중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 감정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추가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과 면담 내용이 모두 녹음되며, 필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와 연구를 지도하는 주심과 부심 교수들이 공유할 수 있음을 밝힌 후 동의를 구하였다.

---

[47] 라포(rapport)는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심층 면담을 위해서는 라포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8] 나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신종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층 면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위해 나는 대면 심층 면담과 함께 비대면 심층 면담을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비대면 심층 면담을 위한 줌(Zoom)과 같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를 위해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셋째, 심층 면담 전 3-4 회 정도 전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안부와 날씨, 관심사항 등을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넷째, 심층 면담 중 대화에 유머를 사용하고 눈빛과 시선,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의식하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말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녹음 파일은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할 것이고, 개인 컴퓨터를 암호화하여 관리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 시간을 내야 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과 요청에 최대한 맞추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 보호, 윤리적 연구를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승인번호:2020-007)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에 나오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49]

구 분	성 별	나이(만)	직 분	신앙연수	조부모와 동거(경험)여부
연구 참여자 A	남	88	은퇴장로	78 년	O
연구 참여자 B	여	83	명예권사	56 년	O
연구 참여자 C	남	72	명예권사	60 년	O
연구 참여자 D	여	74	명예권사	48 년	O
연구 참여자 E	남	78	은퇴장로	57 년	O
연구 참여자 F	여	75	명예권사	62 년	X
연구 참여자 G	남	62	장로	42 년	O

[49]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에 나이와 직분, 신앙연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여부를 각각 포함시킨 이유는 이런 선정 기준들이 답변에 대한 적극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여부의 경우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화, 노인 차별에 대한 관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 H	여	52	권사	45 년	X
연구 참여자 I	남	44	집사	28 년	X
연구 참여자 J	여	46	집사	24 년	O
연구 참여자 K	남	38	집사	17 년	X
연구 참여자 L	여	36	집사	21 년	O

면담 장소는 교회 공간에서 외부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반 노출개방형 문으로 되어있으며, 공개적이지만, 개인의 답변들이 보호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한 친교실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공간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어느 시점에서나,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에 대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지침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줌(Zoom)과 같은 영상 애플리케이션과 전화 통화를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심층 면담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가능했다.

C. 연구 진행 방법 및 절차 (Methodology and Procedure)

K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의 경험을 살펴보고, 초고령화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을 지향하는 목회 돌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자료 분석 절차는 자료의 검토, 의미나 주제의 유출,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첫째, 자료의 검토는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의미나 주제의 추출은 발견된 의미와 주제를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셋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하는 것은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은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은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50] 이러한 분석 절차를 바탕으로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지오르지(Giorgi)의 연구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1.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읽는다.
2. 각각의 필사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반성한다.
3.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한다.
4. 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 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기술한다.
5.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참여자 전반에 걸쳐서 각각의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한다.
6.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한다.
7. 참여자에게 유효성을 확인한다.

---

[5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I,* 110.

8. 모든 진술들을 종합한다.[5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진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이 연구의 연구 배경과 문제, 그리고 논지에 관해 설명한다.

2.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모집한다.

3. 심층 면담을 통해 K 교회 세대 간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4. 수집한 연구 자료를 지오르지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5.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및 대안, 결론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K 교회의 세대 간 경험을 통하여 노년 세대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 대안에 대해 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절했다. 위의 연구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먼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나는 먼저 30 대부터 70 대 이상까지의 성도들을 성별로 나누고, 청장년 세대(30~70 세)와 노년 세대(만 70 세 이상)로 구분한 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모집한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52] 심층 면담은 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과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53]

심층 면담을 위한 심층 면담 가이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다음에 나오는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심층 면담 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51]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I*, 107.
[52]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24 페이지 참고.
[5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23-24.

세대 간 경험, 노년 세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해볼 수 있었다. 심층 면담 가이드의 질문들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에 대한 이야기, 둘째,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 셋째, 노년 세대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표 3〉 심층 면담 가이드

구 분	질 문 내 용
1-1	K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1-2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환경,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3	한국 사회나 교회 안에서, 또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K 교회 안에서 세대 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신가요?
1-4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5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세대 간 소통의 자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1-6	(노년 세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질문) 교회의 직분에서 은퇴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1-7	에이지즘(연령 차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8	에이지즘(연령 차별)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2-1	(노년 세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질문) 본인이 노인이 되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2	노인과 노화(나이 듦)에 대해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2-3	노인과 노화(나이 듦)에 대해 말씀하신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4	성서나 그 밖에 학문적인 분야를 통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1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2	우리 교회의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시나요?
3-3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를 위해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으신가요?
3-4	앞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5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사역에 어떠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에서 선행된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표 4〉과 같다.

〈표 4〉 심층 면담에서 선행된 판단중지 내용

번 호	질 문 내 용
1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2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년 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4	청장년 세대는 노년 세대에 대하여 불편함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5	노년 세대는 변화를 싫어하며,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할 것이다.
6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과 노화(나이 듦)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연구 참여자들은 에이지즘(연령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8	연구 참여자들은 에이지즘(연령 차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이다.
9	노년 세대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신앙의 어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0	노년 세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일 것이다.
11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 세대 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나는 면담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모든 상담 내용을 필사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리한 것을 읽고, 확인시켜주며,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Data and Analysis)

나는 12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지오르지(Giorgi)의 분석 절차에 따라서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의미단위와 주제, 구성요소, 그리고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K 교회 성도들의 세대 간 경험을 중심으로 노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차별, 소외감에 대한 내용과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이유, 노년 세대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한 생각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담의 내용은 총 20 개의 의미 단위로 요약하였고, 이를 11 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1 개의 주제를 다시 6 개의 구성요소로 묶은 후 총 3 개의 범주를 도출해 내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둘째,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셋째,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이다. 심층 면담 내용의 자료 분석 결과는 〈부록 B〉에 첨부하였다.

구 분	내 용
면담분석 결과 3 개의 범주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

1.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Loss,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of the Elderly through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나니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 ‘마음이 아직 젊은데,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른 것 같다. 도무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것은 노년 세대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짐에 따라,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젊었을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반영하는 대답일 것이다. 즉,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 해왔지만, 지금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머무는 주변인이 되어버렸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이 노년 세대에게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나이가 듦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교회를 향하여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과 관심, 그리고 배려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A]
> *3 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전히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제가 느끼는 상실감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 내 모습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를 보시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연구 참여자 D]
>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가는 때가 많아지다 보니 마음조차 약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솔직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에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들어요.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 [연구 참여자 K]
> *항상 예배 때마다 미리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신 후에 드리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인사드리며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허탈하게 웃으시며 "맨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교회 안에서 잊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늙은이가 그거라도 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무언가 허탈함과 고독감, 외로움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이 약화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바로 '상실감'이었다. 마음은 젊었을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오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도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노년 세대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B]
>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은퇴하고 명예권사가 된 후에는 거의 교회 일은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이 주책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에서도 노인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게 미덕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서 최대한 자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젊고 열정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연륜과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 *최근에 교회 관리하는 일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면접도 보지 못하고 자격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68세였던 어느 권사님이 합격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72세인데,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한 번도 제가 노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나이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 관리와 관련된 좋은 기술과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고 나니 찾는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노력으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연구 참여자 E]
>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년 세대를 어느샌가 능력 없고 무능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은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식의 분위기가 마치 어른에 대한 공경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D]
> *작년 당회 때 교회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어르신들 신경 쓰이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저를 위해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 노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감과 차별은 건강 상태와 사회에서의 은퇴, 교회 안에서의 역할 상실,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의 단절 등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과 차별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이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에게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다들 직장, 학교에 가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고, 교회에서도 무언가 일을 하자니 젊은 사람들 불편하게만 하는 것 같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 참여자 C]
아직은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와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고 교회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D]
전에 은퇴찬하예배를 드리는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던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외로움의 시작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해왔던 노년 세대가 교회 안에서 은퇴를 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그들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봉사와 섬김, 목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들은 특히 청장년 세대 간 소통의 단절,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 참여자 F]
우리 교회는 가족 분위기의 작은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서 세대 간 소통 시간이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다가가도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고, 예배

시간도 다 달라서 대화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한 교회에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구 참여자 A]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다들 너무 여유가 없어 보여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주중에 일하랴 주말에는 교회오랴 참 힘들 것 같아요. 예전이랑 비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가족 중심적이라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E]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씀도 잘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무관심이라고 해야 하나? 본 척도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뭐 일부러 그러지야 않겠지만.. '내가 늙어서 가까이 오기 싫은가.. 내가 너무 구시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저희 때는 반주 없이, 찬양인도자 없이도 목사님이랑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르고 했죠. 지금도 혼자 밤 9시에 혼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자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가만히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노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억지로 하거나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달라요. 달라.

노년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심리적 특징으로는 소외감, 외로움이 심해지고, 소극적인 성향이 증가하여 문제에 적응하는 방식이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직성이 증가하고,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 조심성이 증가한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의 변화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이 매우 커진다.[54] 이러한 노년기의 특징과 함께 소통의 단절, 세대 간 차이 등으로 인해 노년 세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지 못하며, 상실감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54] 추부길 and 이옥경, *실버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5), 31-8.

수 있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어느샌가 주변인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만 해야 하는 존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성서 안에서 노인은 지혜로움과 공경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계승하며,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 가며 존경받아야 할 노년 세대가 오히려 교회의 짐과 같이 여겨지며, 환대받기보다는 소외와 외로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노년 세대의 현실이다. 이러한 노년 세대에 대하여 교회와 목회자는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Nega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Aging (Aging))

연구 참여자들 12 명 중 만 70 세 이상의 노년 세대가 6 명, 30~60 대의 청장년 세대가 6 명이었고,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2 명 중 8 명이었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노인과 노년 세대에 대한 태도나 선입견 등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선정기준에 포함하였고, 실제로 노년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에 대해서는 1 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하여 3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기반 등에 대하여 약하고, 부족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비추어졌다.

[연구 참여자 G]
나도 60 대니, 노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건 추하다는 이미지예요. 늙은 외모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활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이런 안좋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굳어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K]
노인하면.. 힘 없고, 쓸쓸한 모습이 떠올라서 누군가가 보살펴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을 떠올리면 노화가 생각나고, 노화를 생각하면 노인이 떠올라요.

[연구 참여자 I]
노인과 노화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련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네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세대인가와 관계없이 외적인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노인과 노화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드라마나 광고, 신문 기사나 주변 지인들의 모습 등을 통하여 노인과 노화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 고독한 삶의 이미지와 더불어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세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
노인은 결국은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 노화 역시 내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광고 등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인지 좋은 이미지보다는 병들어 아프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기억되네요.

[연구 참여자 E]
노인과 노화라.. 일단 저와 제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머지않아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화도 뭔가.. 다 타들어 가는

양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노인과 노화라는 단어는 좋은 생각은 들지 않는 단어예요.

[연구 참여자 J]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꽉 막히고, 고지식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소통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더불어 세대 간의 차이와 소통의 부재로 교회 안에서조차 노년 세대는 환대받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 셋째, 노년 세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될수록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F]
저도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끔은 두렵기도 해요. 흰 머리만 좀 더 늘어난 것 같아도 걱정이 되곤 해요.. 아무래도 늙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어떻게 하면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최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감사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강의나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노인과 노화에 대한 심층 면담 분석 결과를 에이지즘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 차별주의가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생각보다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연령자별주의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인가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질적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문제와 같은 실제적인 고민과 물음 앞에 성서와 신학의 관점을 통해 배우고, 도움받을 수 있는 목회 돌봄의 요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3.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Elderly and Aspiration for a Mature Life)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체성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임을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 세대에 대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굳건한 믿음과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신앙의 계승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노년 세대에게 적합한 신앙 교육과 영성 훈련과 같은 목회 돌봄 사역을 요청하였다.

> [연구 참여자 A]
> *남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듭짓고 싶습니다. 말로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예배에만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노년 세대 모두가 신앙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연구 참여자 B]
>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시간도 교회 안에서 갖는다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 [연구 참여자 C]
> *노인들도 교회학교 아이들처럼 눈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나 강좌, 영성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이 들었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훈련받고,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연구 참여자 G]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 사역이 있다면 저도 꼭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라는 말이 자연스럽듯이 노년 세대 사역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E]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 세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늘 그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노년 세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열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년 세대인 자신들이 교회와 자녀 세대들에 대하여 갖는 역할과 책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과 프로그램, 영적 훈련의 시간을 요청하며, 목회 돌봄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의 필요성과 실천 중심의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반영하여 적용해 나가는 것이 나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심층 면담을 통해 세대 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청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응답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대 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 노년 세대에게 필요한 목회적 방향성과 돌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노년 세대가 교회 안에서 세대 간 경험을 통해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노년 세대가 자신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K 교회의 세대 간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심층 면담을 분석한 질적 연구 결과들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Chapter Ⅳ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
(Pastoral Direction and Practical Pastoral Care for the Elderly)

A.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Ministry for the Elderly who Experience Loss,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1.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Changes in Perspectives on Viewing Older Generations)

최샛별은 *한국의 세대 연대기*에서 노년 세대를 향한 젊은 세대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일본에서 노인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젊은 세대에게 노인은 권위를 잃은 '꼰대', 더욱 심하게는 노인 뒤에 벌레 '충'자를 붙인 '노인충'이라 불리고 있다.[55]

이것은 비단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노인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인 혐오의 문제는 노인 학대와 더불어 그 밖의 다양한 노년 세대와 연관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노인 세대가 갖는 고민들, '은퇴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외로움과 소외감' 등에 대하여 노년 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55] 최샛별, *한국의 세대 연대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24.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의 노인 세대를 더욱 잘 이해하고,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56] 노인 세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측면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57] 이를 통하여 세대 간 소통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인 혐오를 넘어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예방해 나감으로써 이제부터라도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현재의 노인 세대만의 문제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갖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를 통해 노년 세대가 신학적, 성서적 관점에서 새로운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목회 돌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양극화된 노인 차별(Bipolar Ageism)의 극복 (Overcoming Polarized Elderly Discrimination)

한국의 유교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양극화된 노인 차별(Bipolar Ageism)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인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경멸하는 태도로, 거만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이 변장 된 노인 차별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온갖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겉으로는 덮어버리지만,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늙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덮어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늙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

56 최샛별, *한국의 세대 연대기*, 199.

57 Ibid., 239.

것이다.[58]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노인들에 대한 친절의 겉과 속을 같아지도록 함으로써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3. 은퇴의 재구성과 소명의 재발견 (Reconstruction of Retirement and Rediscovery of Vocation)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또 다른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은 '은퇴의 재구성과 소명의 재발견'이다. 우리는 은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하는 노동 안에서 더욱 새롭고 유익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제안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닌 존엄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세상과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며, 우리에게 다가올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59]

우리가 은퇴 후에도 죽기 전까지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재발견하고, 영적인 여정을 가능하게 하며, 삶을 통하여 다방면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은퇴의 모습을 바탕으로 은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

[58]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59] Stevens, *Aging Matters 나이듦의 신학,* 30-7.

은퇴를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스티븐스의 '은퇴를 재구성하기'는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된다.

첫째, 은퇴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하나의 유익한 충격이다. 둘째, 은퇴 이후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셋째, 은퇴는 한 사람의 재능과 기질, 삶의 경험에 좀 더 적합한 일을 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넷째, 은퇴는 한 사람의 소명을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은퇴는 우리가 변화를 꾀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60]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받는다. 그러므로 매 순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61]는 칼 바르트의 말처럼, 인생 후반기에 있어서 소명은 매우 중요하다. 소명은 계속되지만 드러나는 방식은 바뀔 것이고, 노년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칼 융은 "아침에 중요했던 것이 오후에는 보잘것없어진다"라고 표현했다. 즉, 어떤 사람이 목사, 학생 상담사, 경영자, 교수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결국 그의 소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과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다면 소명의 겉모양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앎으로써 소명의 포괄성, 소명에 대한 오해,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 소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명의 재발견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62] 이와 같이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는 '은퇴의 재구성과 소명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이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개인의 영성 발전과

---

60 Stevens, *Aging Matters 나이듦의 신학*, 25-6.
61 Ibid., 44.
62 Ibid., 46-7.

함께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B. 노인의 재발견, '나이듦'에 대한 사고의 전환 (Rediscovery of the Elderly, a Shift in Thinking about 'Aging')

'청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미래, 열정, 도전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노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를 수치스러워하게 만드는 문화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애플화이트는 연령 차별이라는 개념을 만든 로버트 버틀러 박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문화는 나이 든 사람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노인들의 인권이나 안녕도 개의치 않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미래인 노년을 '추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성생활의 영역에서는 연령 차별이 더 성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드러난다. "'성욕이 없는 노인'이라는 고정관념 따위는 집어치워라"[63]라는 문장을 통해 노인들의 성생활을 생각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혐오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연령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혐오를 통해 노인들의 성적 존재를 묵살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행복을 무시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온갖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4]

나이 듦, 노년의 모습은 정말 이러한 것인가? 애플화이트는 '나이듦'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63] Stevens, *Aging Matters 나이듦의 신학*, 189.
[64] Ibid., 193.

> “우리가 걸어온 궤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놓아주면서 그 길을 항해해왔다. 자녀든, 집이든, 꿈이든, 살아오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의 총합이 지금의 우리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롭고 깊이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나이듦(agefulness)’이다.”[65]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든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를 ‘노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으며,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 안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티븐스는 ‘나이듦’이란 은퇴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회이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성숙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66] 나이듦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인 ‘소명’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내가 살고 있는 K 시 안에서도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노인들의 경험들은 세대 간 협력을 이끌어내며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꼭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지혜를 얻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노인이 되면 우울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인들이 청년이나 중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의 U

---

65 Stevens, *Aging Matters 나이듦의 신학*, 83.
66 Ibid., 13.

곡선'과 같이 사람들은 인생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67]

C.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 (Balance Between Self-assimilation and Self-accomodation)

자아동화(Identity Assimilation)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상실과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자기방어적 기제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자아조절(Identity Accommodation)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선입견을 비판 없이 내면화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이러한 선입견에 일치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68] 노년 세대의 경우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경험들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노년의 삶 속에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노년 세대는 자신의 유한성과 연약함에 직면함으로써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69] 다시 말하면, 처음에 노인들은 노화 자체에 절망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강과 재정, 자녀, 관계 등의 상실을 통해서도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늙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 세대는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을 통하여 노년의 삶과 노화에 대해 적응해 나갈 수 있으며,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자아 통합[70]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아동화가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67]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14.

[68]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69]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는 절망을 진정한 자아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 몰입하는 영의 병이면서 동시에 자아의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70] 자아 통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 페이지 참고.

부분에만 집중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성서 안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71]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상황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자아동화는 사회적인 소외,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 노화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젊었을 때처럼 살 수 있고, 그 젊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참다운 노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자아동화의 경우 외부의 부정적 시선, 자신의 다양한 상실, 인생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것과는 반대개념으로 자아조절의 경우 외부의 시선, 편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성이 약하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자아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고, 자아동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이 많다.[72]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노력이 앞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목회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71]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72] Ibid.

D.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 (Activation of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 세대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그들은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인한 노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에이지즘을 바탕으로 노년 세대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나이듦'에 대한 사고의 전환, 자아동화와 자아조절의 균형을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돌봄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대를 위한 실천 중심의 대안으로 자서전 그룹을 발전시킨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앞에 언급한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돌봄이 노년 세대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자서전 그룹을 진행함으로써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돌봄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자서전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the Autobiography)

자서전은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기록할 수 있는 개인의 역사서이자 사회 문화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73] 초고령화 형태로 진입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노년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노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건강하게 사회로 회기하고 기여할

[73] "자서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ccessed January 14,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7908&cid=46645&categoryId=46645. 자서전은 저자, 화자, 주인공이 같으며, 변화와 지속성 같은 시간적 연쇄로 이루어진 삶을 소재로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량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이야기의 방식에도 별다른 기준이 없을 만큼 자유롭지만, 삶에 대한 솔직한 서술은 자서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다. 회고록, 회상록, 고백록, 자서전적 소설 등의 비슷한 장르가 있다.

수 있도록 돕는다.[74]

과거 자서전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누리는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80~90년대 자서전 속 주인공들은 대기업 창업자나 정치인 등 유명인이었다. 그들은 자서전을 이용해 자신의 업적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여생의 목적을 달성해 나갔다. 그러나 최근에 와 자서전은 그 의미와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노년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들은 문화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가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자서전 집필 관련 강좌를 열며 출판까지 돕는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다.[75] 또한, 과거에는 대량 출판만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전자출판이나 단 한 부만 발행하는 일도 가능해졌다.[76]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서전을 집필, 출간하는 노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서전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고백이 타자 지향적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 먼저 타인에게 공감과 연대의 대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난과 불우, 불안과 소외 등의 개인적 아픔을 자서전에 털어놓을 때 저자는 고백을 통해, 독자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는 고백의 과정에서, 독자는 타인의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상황 맥락을 포함한 공동체 문화를 이야기에 투영하게 된다. 실존하는

---

[74] 이혜경,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인문도시지원사업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어문학회* vol. 41 (February 2019): 530.

[75] 관악구청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자서전 출판 사업', 구별 사회복지관과 광양중앙도서관의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사업', 논현도서관, 트리니티 신학대학, 홍은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자서전쓰기' 강좌 및 다양한 자서전 강좌나 쓰기 프로그램, 출간 지원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76] 이혜경, 531.

개인의 실재적 일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서전은 특히 저자와 독자가 자서전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감과 연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77]

다음으로 기억을 재현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타자로부터의 "인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작용과 타인과의 연계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기억을 재현해 내적 회복을 거치는 것과 아울러 능동적이고 투쟁적으로 주체와 타자 간에 상호인정을 이룩해 가야 한다.[78] 노년 세대의 결핍은 이러한 '실천'과 '인정'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인 가치의 결핍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업적을 정리하고, 자신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동시에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인정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인은 삶의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79]

2.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필요성 (The Need for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노인 혐오와 차별이 내면화되면 노인들이 소통하지 않게 되어 결국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는 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에이지즘을 깨뜨리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

77 이혜경,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 533.
78 임순철,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광운대 박사논문, 2016), 53-5.
79 이혜경, 535.

자서전 그룹은 지혜의 특징과 관련 지어 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단순히 쇠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는 관점을 갖도록 한다.[80]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Reminiscence)[81]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비평적으로 회고한 후 글로 옮긴 형태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개적인 인생 회고(Life Review)이다.[82] 그러므로 혼자서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자서전 그룹이 비록 치유 그룹은 아니지만, 노인 참여자들은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노년 세대를 위한 자서전 그룹의 치유 효과는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자서전 그룹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서전 그룹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집단의 12 가지 치유 요소, 신뢰와 수용, 공감과 돌봄, 친밀함, 희망 실험에 대한 자유, 카타르시스, 인지 재구성, 변화에 대한 헌신, 자기 공개, 직면, 피드백의 유익함, 논평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서전 그룹은 노인 참여자들의 과거의 삶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노인 참여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삶의 문제들과 화해하도록 도우며, 그들의 삶을 "현재의 시각"에서 돌아보도록 도와준다. 또한,

---

[80] 지혜의 특징은 노년 세대가 경험한 힘든 과거를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 행동했던 것을 바꿀 수 없음에 대해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온 현재의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81]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으로써, 자서전 그룹에서는 개인의 과거를 추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82] 인생회고는 인생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비평적으로 회고하는 것으로써 분석과 가치판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서전은 이 비평적 회고를 글로 옮긴 형태이다.

내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도 겪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나눔을 통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83] 즉, 자서전 그룹은 노년 세대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상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치유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자서전 그룹을 발전시킨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노년 세대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안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1)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세대 간 차이와 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2) 여러 세대가 모여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동질성이 약해지고, 다양성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경험하는 서로 다른 인생의 국면에 대한 공통 요소와 구별된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 서로 다른 세대가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을 검토하고 비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노화에 대한 오해에 도전하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에게 노인과 노년의 삶, 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5)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를 통해 '삶을 통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84]

결국,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이 주는 유익은 세대가 다름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진행함으로써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세대가 아니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노년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서전 그룹의 장점과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위에 언급한 장점들과 유익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범주화 한 세 가지 분석 결과에 대해

[83]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84] Ibid.

접근하고 있다. 먼저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 차이와 갈등, 서로 다른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노인과 노년의 삶, 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노년 세대의 역할 발견과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깨닫게 함으로써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과 대안으로 적합하다.

3.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실제 (Application of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나는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과 실천 중심의 대안으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자리 부족과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노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실천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진행자 선정과 참여 대상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담당 목회자나 자서전 그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85] 일반적으로 자서전 그룹은 '글을 읽고 쓸 줄

[85] 자서전 그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자서전 그룹이나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도 좋다.

아는' 노인들과 '신체와 정신이 정상적인' 노인들을 참가자로 모집한다.[86] 노인들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노인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충분한 동기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경우 노년 세대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세대 역시 참여 대상이 된다. 참여 인원은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진행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8 명으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젊은 세대가 노인과 노년의 삶, 노화와 노년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게 한다. 또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b.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위한 장소와 환경적 요소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위한 장소는 그룹의 규모와 동시에 진행되는 그룹들의 수, 모든 참여자들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노년 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화와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제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참여자나 관절이 약해진 고령의 노인 참여자들을 위해 접근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대가 자서전 그룹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분리된 조용한 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

[86] 노인 참여자들에 대한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서전 그룹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밖에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이 진행되는 장소에 주제에 따라 데코레이션을 변경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와 집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주제 선정과 진행 관련사항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참여자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인 주제 10 가지'와 '영적인 주제 10 가지'를 기본 주제로 제시한다.[87]

특히, 주제를 일반적인 주제와 영적인 주제로 제시한 이유는 이렇게 양쪽으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호보완이 되고, 총체적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위한 주제를 선정한 후,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약 두 시간 정도를 진행 시간으로 정하고, 최소한 10 번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좋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성별과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진행과 관련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임 시간이나 출석에 대한 약속, 조장 선정, 작성해오는 자서전의 양식이나 분량,[88] 비밀 보장, 그룹에서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의 태도 등에 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보다

---

[87]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위한 일반적인 주제 10 가지는 '인생의 갈림길'(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 '가족', '삶에 있어서 돈의 역할', '직업과 경력', '노화, 건강과 신체', '성정체성'(성역할, 성적경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생각', '영적인 삶과 가치관', '삶의 목표와 열정', '삶을 정리하기'이다.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위한 영적인 주제 10 가지는 '신앙의 유산', '노화와 영성',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 '영적 건강', '교회 공동체', '평등과 하나됨', '영적 성장과 성숙', '기도와 응답', '십자가'이다.

[88] 실제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K 교회에서 6 명과 8 명으로 구성된 2 개의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일반적인 주제, 영적인 주제)을 진행해보니 자서전의 분량이 A4 용지 기준, 2 페이지 내외가 진행하기에 가장 적당했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d. 세대 간 자서전 그룹 매뉴얼

자서전 그룹에 기본적으로 강의가 없듯이,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역시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중 한 가지를 “노화, 나이듦”이라는 주제로 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자연스럽게 “노화, 나이듦”이라는 주제에 대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공통된 의견도 있고, 차별된 의견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주제에 대한 각 세대의 의견과 생각의 차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누군가가 세대 간 자서전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특징이다. 참여자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작성해 온 자서전을 읽고 누군가 발표자에게 질문이나 조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통찰력이 발표자를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배움과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인도자나 진행자가 그룹 안에서 나눈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만, 강의자가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직접 진행해 볼 수 있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진행자 매뉴얼을 다음에 나오는 〈표 5〉와 〈표 6〉과 같이 제시한다.

〈표 5〉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진행자 매뉴얼 1

구 분	내 용	확 인 사 항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진행 전 확인사항	참여자 출석 명단	연구 참여자의 인원을 6~8명으로 구성하되 참여자 출석 명단을 작성하여 세대 간 자서전 그룹 모임시 확인한다.
	장소 관련 사항	1. 그룹의 규모와 동시에 진행되는 그룹들의 수, 모든 참여자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특별히 신체적 제한(장애, 휠체어 사용 등), 보안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한다. 3. 주제 '죽음'에 맞는 데코레이션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선정된 장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음악을 준비하거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긴장감을 풀어준다.
	자서전 작성 및 참여자 준비사항 확인	1. 참여자 매뉴얼이 사전에 배포되었는지 확인한다. 2. 세대 간 자서전 그룹 모임 3일 전 참여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하여 참여자 준비사항과 자서전의 준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다.

	진행 순서와 규칙에 대한 이해와 숙지	1. 참여 인원: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나눔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 인원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비율을 고려하여 6~10 명으로 제한한다. 2. 주제선정: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의 주제 선정 시 참여자들의 성별과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주제를 구성할 때 일반적인 주제와 영적인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상호보완이 되고 총체적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주제를 모두 진행한다. 3. 진행 시간과 모임 횟수: 진행 시간은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진행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 10 번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 4. 자서전의 분량: 자서전 작성은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A4 용지 기준 2 장으로 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되 나눔 명조체 11 포인트, 자간 160%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5. 세대 간 자서전 그룹에서 나누고, 공유하는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룹 안에서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표 6〉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진행자 매뉴얼 2

진행 시간	순 서	세 부 내 용
2 분	인사 및 안내	진행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어색하지 않도록 구심점이 되어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한다.

3 분	주제에 대한 이해 돕기	작성해 온 자서전 내용 발표 전 주제 선정 이유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자서전 그룹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한다.
20 분	참여자 준비사항 함께 나누기	자서전 그룹을 위해 준비한 참여자 준비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되, 가급적 1 인당 3 분 이내로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한다.
5 분	준비사항 나눈 것들에 대한 의미와 내용 요약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요약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키워드나 내용을 전달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강의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여자 중 깨닫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1~2 인 정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60~80 분	참여자의 자서전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참여자의 자서전 발표는 1 인당 10 분 내외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자가 요약할 수 있다. 발표 진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자서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거나 진행자의 주관적 의견을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발표 내용에 공감은 하되 과한 리액션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분	세대 간 자서전 그룹 나눔에 대한 소감 발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가급적 모든 참여자가 한 마디씩이라도 자서전 그룹 나눔에 대한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 발표 시간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 인당 3 분 이내로 제한한다.
5~10 분	요약 및 정리	참여자의 자서전 발표가 끝나고 소감을 나눈 후 진행자는 주제와 연결하여 자서전 그룹에서 나눈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서전 나눔과 소감을 발표할 때 참여자들이 깨닫거나 느낀 내용을

		미리 메모해놓고, 그 내용을 활용하여 서로의 나눔을 통한 깨달음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5분	마무리	다음 모임에 대한 안내(모임 시간과 장소, 주제, 참여자 준비사항 등)를 하며, 마무리한다.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자는 〈표 5〉과 〈표 6〉에 정리된 진행자 매뉴얼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효과적인 그룹 나눔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진행자 매뉴얼과 더불어 나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에 참여하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자들을 위한 참여자 매뉴얼을 다음에 나오는 〈표 7〉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참여자 매뉴얼

구 분	내 용
주 제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
주제 선정 이유	1.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의 주제이며, 관심사이다. 2. 세대별로 죽음에 대한 이해나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참여자 준비사항 (3가지 중 택2)	1. 자신의 삶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찾기 2. 유언장 작성 3. 자신이 죽은 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품 선정과 이유
자서전 쓰기	1.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 나누기

	2. 자신이 죽을뻔 했던 경험에 대한 나눔(질병, 사고 등) 3.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가족, 친구 등)과 느낌에 대한 나눔 4. 신앙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이해 5. 죽음에 대한 준비
기대효과	1.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통해 죽음에 대한 세대 간 관점과 이해의 차이에 대한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다. 2.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 간 지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하고,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3. 세대 간 나눔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나눔으로써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참여자들에게 자서전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룹에 참여하기 전에 자서전을 미리 작성하며, 주제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자 매뉴얼에 대한 예를 <표 6>과 같이 제시했지만, 일반적인 주제 10 가지와 영적인 주제 10 가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강의를 하는 형식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배우는 것을 통하여 세대 간 이해와 갈등 해결, 특별히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과 실천 중심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

초고령화된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와 교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직장, 가정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으며, 상실과 차별,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적 상황 속에서 나는 "갈등, 치유, 변화"(Conflict, Healing, Transform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현재 내가 목회 현장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목회적 고민과 한계 상황 속에서 갈등 상황을 발견하고, 치유를 통하여 변화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통합적 상황 분석과 신학적 관점을 통해 목회 현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유익과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목회 현장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나는 K 교회는 세대 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K 교회 성도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하여 세대 간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후 에이지즘의 관점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나는 처음 질적 연구를 시작할 때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의 현상을 보며, 내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K 교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분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의 극복 가능성과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김용환의 에이지즘 강의를 듣던 중 세대 간 갈등보다는 에이지즘, 연령차별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그중에서도 노인 차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클레어몬트에서 에이지즘 강의를 듣기 전부터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나의 목회 관심과 방향은 늘 젊은 세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세대 간 갈등 중에서 그동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노인 차별과 노인 갈등, 정확하게는 에이지즘을 보다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접하면서 질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 계획했던 세대 간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연구가 아닌,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과 실천 중심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나는 초고령화 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목회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를 통한 노인 차별의 극복과 노년 세대에 대한 '변화와 다양성'이 있는 삶과 신앙, 외로움과 상실에 대한 '함께함'의 목회에 대한 방향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 간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지즘(Ageism)과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 성서와 신학의 관점에서 노화와 영성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목회적 접근 방법과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천 중심의 대안으로 자서전 그룹의 장점과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대 간 자서전 그룹에 대한 개념과 특징, 유익함과 규칙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연령 차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문제점들을 발견함으로써 노년 세대와 노인 차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이듦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노화와 영성의 관계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으며, 에이지즘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재발견과 노년 세대 목회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목회에 대해 '세대'라는 프레임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노년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방향을 설정한다면, 교회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나타나는 갈등을 극복하고, 이해와 포용, 그리고 공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세대에 대한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행동, 생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적,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 세대들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더는 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며, 그들이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능력 등이 약해지면서 젊은이들보다 무조건 부족한 존재, 부양하고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그들의 나이와 경험이 큰 자산이며, 그들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임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에 대해 이전에는 막연하게 노인들을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역동적인 노인목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교회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은 단순히 노년 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의 재고와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은 앞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를 준비하는 나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A: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채두식 목사의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의 김용환 박사, 김남중 박사의 지도 아래 채두식 목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지도교수의 이메일은 김용환 박사(주심, yonghwan.kim@cst.edu), 김남중 박사(부심, njkim@cst.edu)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 차별에 대한 목회 돌봄과 실천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참여는 세대 간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활용될 것이며,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 48, K 교회 2 층(담임목사실), ***-****-****, yisarangds@naver.com

만약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약 1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연구자와의 일대일 심층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면담을 위한 장소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의 친교실이 되겠지만, 원하지 않으신다면 요청하시는 개방된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19 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모바일을 통한 SNS 프로그램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 등을 통한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심층 면담을 통한 귀하의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녹음되고, 분석을 위해서 필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참여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본 논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지급과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인터뷰는 K 교회 안에서 세대 간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의견이므로 논문 연구를 위한 분석과 평가가 되는 소중한 자료들로 활용될 것이고, 연구의 신뢰도와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하여 초고령화된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목회적 방향성, 그리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약 1 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 형태의 일대일 인터뷰가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공개된 공간이지만 장소와 분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질문의 내용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인터뷰를 잠시 쉬거나, 질문에 대해 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관련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소,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오직 논문에 대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 외에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 연구를 지도하시는 주심과 부심 교수님들만 자료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뷰에 대한 녹음 파일과 필사본은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만 저장될 것이며, 암호화를 통해, 연구자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논문 연구가 끝나면 귀하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원하지 않으면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연구자 채두식 목사의 연락처(***-****-****)나 이메일(yisarangds@naver.com)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0-007]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의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

주소: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 B: 지오르지(Giorgi) 자료 분석 결과: 의미 단위, 주제 및 구성요소

(Appendix B: Data Analysis Based on Giorgi's Theory)

의미 단위의 요약	주 제	구성 요소	범주
1.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부재 2. 청장년 세대와 세대 차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3. 노인이 되어 건강의 악화로 인해 무기력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생각 4. 교회와 자녀 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 5. 건강과 죽음, 남은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우울함 가득한 모습 6.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에 속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모습 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회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며, 침묵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1. 청장년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2. 나이가 들어 교회 직분에서 은퇴한 후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3.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와 정신이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4.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의 무관심을 경험하고 있다.	1. 소통 단절과 더불어 환대받지 못하는 노년 세대 2.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A. 세대 간 경험을 통한 노년 세대의 상실과 차별, 소외감

의미 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노인은 외모가 추하고, 신체와 정신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 2. 노인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생각 3. 노인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 4. 광고나 드라마를 통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영향 5.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노년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임 6.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7. 노화가 진행될수록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1.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기반 등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2.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고독한 삶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3. 늙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1.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B. 노인과 노화(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미 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 2. 건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 3.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4.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성숙한 노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5.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6.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1.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건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2. 노년 세대에 맞는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89] 3.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4.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과 삶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 노년 세대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2. 노년 세대의 성숙한 신앙과 삶의 열망	C. 노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한 삶에 대한 열망

[89]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훈련이란, 노년 세대의 특성과 상황을 바탕으로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예배와 강의, 친교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부록 C: 세대 간 자서전 그룹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Appendix C: Responses of Study Participants in Intergenerational Autobiographical Groups)

구 분	연구 참여자	세대 간 자서전 그룹 참여자들의 반응
노년 세대	A / 80 대	교회에서 약 45~50 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생활해 왔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노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돌아가기를 반복했는데, 그래서인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앞장서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늙으니 무언가 허전하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B / 80 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요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경험담 같은 것들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의욕도 생기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방향과 영적인 팁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 / 70 대	처음에는 숙제 같은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젊은 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중에는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같은 주제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녀 세대들의 생각도 듣게 되고, 저 같은 노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영적인 팁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D / 70 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해야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인데 다들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잘 들어주셔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 헛된 삶을 살아온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젊은 세대	H / 60 대	죽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는 일인데 너무 혼자서만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죽음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의외였던 것 같아요.
	J / 50 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70~80 대 어르신들의 생각이 궁금했었는데,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미래에 닥쳐올 노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보고, 자신감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 참 유익했습니다.

	K / 40 대	저는 무엇보다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른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특징들을 알게 돼서 서로서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분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L / 30 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는 드리지만 사실 어렵고, 불편했었거든요. 예배드릴 때도, 식사할 때도, 항상 비슷한 연령대끼리만 모여왔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임이 생기니 정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평소에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 (Primary Resources)

[한서]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 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장정개정위원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19.

최샛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최성훈. *고령사회의 실버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추부길 and 이옥경. *실버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5.

[번역서]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A Manifesto Against Ageism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Translated by 이은진. 서울: 시공사, 2016.

Irle, Mathias. *ÄLTERWERDEN FÜR ANFÄNGER 노인은 늙지 않는다*. Translated by 김태희. 서울: 민음사, 2015.

Irving, Paul H. *The Upside of Aging: How Long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Health, Work, Innovation, Policy and Purpose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Translated by 김선영. 서울: 도서출판 아날로그, 2016.

Seeber, James J., Melvin A. Kimble, James W. Ellor, and Susan H. McFadden.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노화, 영성, 종교*. Translated by 노인사목연구위원회, 김열중, and 이순주. 서울: 소화, 2011.

Stevens, Paul.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나이듦의 신학.* Translated by 박일귀. 서울: 도서출판 CUP, 2018.

[논문 및 저널]

김만수. "세대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비교한국학회* vol. 25, no.3 (December 2017): 123-46.

김 욱.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 14 (June 2002): 97-118.

박인아 and 엄기욱. "노인의 연령이 심리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노화를 통한 사회적 노화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 75, no. 4 (December 2012): 263-90.

유혜경 and 이민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인식 수준에 따른 노년 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 25, no. 5 (October 2019): 586-96.

이혜경.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인문도시지원사업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어문학회* vol. 41 (February 2019): 529-52.

임순철.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광운대 박사논문, 2016.

[웹사이트]

"고령화사회." 한경 경제용어사전. Accessed January 7,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574&cid=42107&categoryId=42107.

"자서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ccessed January 14,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7908&cid=46645&categoryId=46645.

<u>2 차 자료 (Secondary Resources)</u>

[한서]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장은. *브라보 실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노경묵. *노년의 삶과 성경적 상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박승민. "근거이론." In *질적 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edited by 김영천 and 이현철, 200-41.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7.

박재홍*.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17.

염성철. *노년기 인생경영: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고양: 도서출판 해븐, 2017.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캐기." In *질적 연구의 즐거움=Qualitative Research,* edited by 김영순, 305-35. 서울: 창지사, 2018.

최유석.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한상진, Ulrich Beck, and Elisabeth Beck-Gernsheim.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edited by 심영희.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번역서]

Carter, James Earl. *Shareing Good Times 아름다운 노년.* Translated by 김은령. 서울: 생각의나무, 2005.

Cruikshank, Margaret.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나이 듦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Translated by 이경미. 파주: 동녘, 2016.

Tournier, Paul. *Apprendre a Vieillir 노년의 의미.* Translated by 강주헌. 서울: 포이에마, 2015.

Packer, James. *아름다운 노년-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Translated by 윤종석.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6.

Haas, Hannegret. *Den Jahren mehr Leben geben 노년을 더 활기차게.* Translated by 홍미경. 이천: 씨뿌리는 사람, 2011.

Nouwen, Henri., and Walter Gaffney.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노인의 영광은 백발.* Translated by 최종수.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Segal, Daniel L., Sara H. Qualls, and Michael A. Smyer. *Aging and Mental Health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Translated by 홍주연. 서울: 학지사, 2016.

[학위 논문]

임순철.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광운대학교, 2016.

신병련.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세대의 신앙활성화 방안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이찬영. “노인교육목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